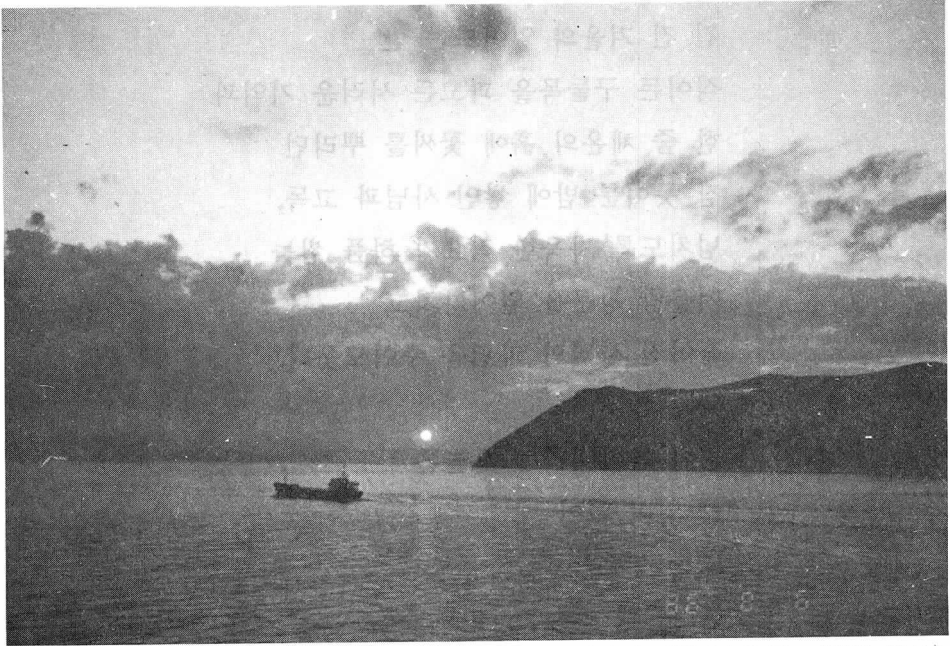


## 日本海上國立公園

## 瀬戸内海の 歴史紀行



李 禹 世



〈사진·瀬戸内海の 落照 風景〉

〈편집자주·이 원고는 지난 8월초 일본국립공원과 일본국립공원협회등을 시찰한바있던 본회 李禹世이사가 평소 보고싶었던 瀬戸内海해상국립공원을 돌아보고 듣고느낀 가운데 특히 12차례, 최고 5백명에 이르는 조선통신사의 왕래 모습을 그린 역사기행문이다.〉

歷史의 海道 — 한국 釜山과 일본 大阪 사이를 왕래하는 국제페리「올림피아88」이 등장한 것은 지난 봄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日本의 海上國立公園 瀬戸内海를 생각했다.

東京特派員시절, 新幹線列車 편으로 여러 차례 오고가는 했으나 陸地에서의 視界밖에 머문 海上公園의 진면모가 언제나 궁금했기 때문이다.

마침 우리 南海의 閑麗海上國立公園을 船上에서 볼 기회를 갖게 되면서 그것은 더욱 절실해졌다.

나의 이 오랜 궁금증을 풀게 된것은 지난 8월 초였다.

東洋의 地中海로 불리는 瀬戸内海는 多島多岬의 경관도 경관이지만 歷史의 숨결이 살아있는 젓줄이라는데 더 큰 매력이 있다.

나는 무엇보다 그옛날 우리 文化의 日本列島에 대한 傳授라는 歷史의 흐름을 따른다는 뜻에서 처음엔 釜山港을 출발하여 大阪港에 이르는 것을 구상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逆路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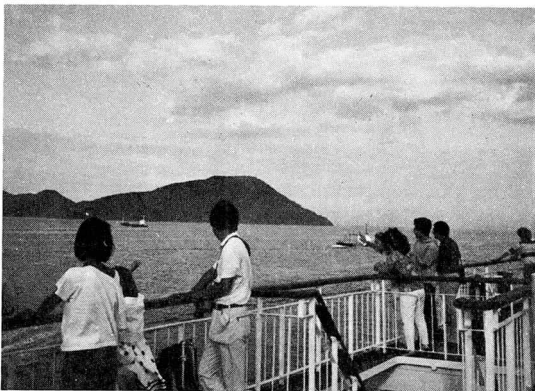
「올림피아88」을 타고 大阪港을 떠난 것은 오후1시였다.

釜山港까지 690km — 21시간의 긴긴 항해가 시작된 것이다.

總噸數 9,995톤에 항해속도가 19노트인 「올림피아88」은 大阪港을 떠나자 곧 瀬戸内海의 이모저모를 차근차근 보여주기 시작했다.

1934년 이래 國立公園으로 각광을 받아온 瀬戸内海는 女性的의 白砂濱과 野性美의 岬이 대조를 이루는 곳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떠나기 전날까지만 해도 日本列島 곳곳에 비가 내렸고 특히 東京一帶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모처럼의 관광여행에 걱정이 태산같았는데 하룻사이에 날씨는 거짓말 같이 좋아져 船客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다.



〈「올림피아 88」 선상의 船客들〉

맑은 하늘 아래 잔잔한 바다 —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岬인가 하면 섬이요 섬인가 하면 岬이었다.

瀬戸内海에는 섬다운 섬 만도 3백여개가 点在해 있으며 滿潮때 잠기는 露礁까지 합치면 그 수가 3천개에 이른다니 과연 대단한 多島海이다.

數的으로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름난 섬들도 많아 日本에서 손꼽히는 1백개의 섬 가운데 21개가 瀬戸内海에 있다.

瀬戸内海는 日本列島의 三大기반인 本州·四國·九州에 둘러싸인 안마당 같은 요지인데 이 內海가 생성된것은 氷河時代이후라고 한다.

그 전까지는 本州와 四國이 한데 붙어 있었다는 것이다.

大阪港을 떠난지 1시간— 瀬戸内海에서 가장 큰 섬인 淡路島와 둘째로 큰 小豆島가 나타났다.

「바다의 銀座」로 불리는 瀬戸内海 담게 이 섬들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이다.

日本사람, 특히 關西地方사람들의 자랑거리인 大阪城을 만들때 그 큰돌이 이 섬들에서 운반돼 갔다고 한다.

그리고 小豆島에는 88개의 절(寺)이 있는데 이 절을 빠짐없이 순례하면 長壽有福한다는 전설이 있어 손님의 발길은 더욱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침 船上에서 알게 된 한 日本人이 그렇게 말했다.

40代의 그는 大學圖書館에서 일하고 있는데 古代와 中世의 韓日關係에 관심이 많아 몇차례 한국을 찾은 일이 있다는 그는 이번에도 그런 학구적인 목적으로 歷史의 海道를 따라 여행길에 나섰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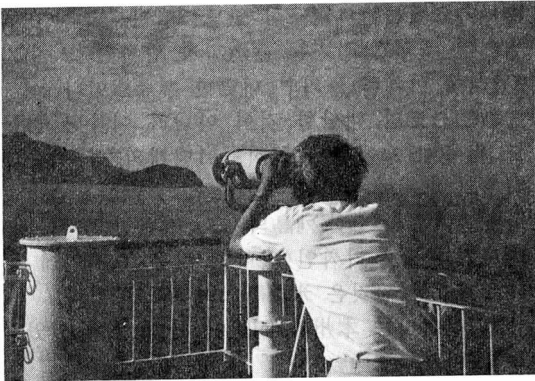
우연하게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만난 셈이다.

話題가 豊臣秀吉의 大作인 天下第一難攻不落의 大阪城에 이르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日本 하면 왜소한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大阪城같은 엄청난 작품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섬나라 국민으로 늘 어깨를 펴지 못했는데 瀬戸内海를 보니까 日本도 제법 우람한 나라 이구나 하는 긍지를 갖게 됩니다』

大阪出身인 그의 얘기는 계속되었다. 『大阪사람의 文化的의 긍지는 대단합니다.

東京사람이 아무리 큰소리쳐도 학생 수학여행은 어김없이 이쪽으로 오니까요. 그런데 大阪의 발전 기반이 바로 이 海道 아닙니까』



〈船上망원경으로 조망하는 筆者〉

歷史의 海道는 소리 없는 소리로 船客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어느새 南녘 저멀리 屋島가 시야에 들어왔다.

日本 平安時代의 말기인 1185년 당시의 兩大地배층이었던 源氏와 平氏의 두 세력이 이곳에서 大決戰을 했는데 결과는 平氏의 참패로 끝났다.

歷史記錄에 따르면 이때 平氏쪽은 8세밖에 안된 安徳天皇을 안고 바다에 투신하는 비극이 있었다고 한다.

이 싸움을 고비로 20여년동안 계속된 源平兩家の 爭亂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리하여 勝者인 源氏는 가마꾸라 바꾸후(鎌倉幕府)의 기반을 닦게 되었고 그뒤 7백년 日本에는 武家政治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敗者인 平氏의 경우 그 怨靈이 게가 되어 지금도 瀬戶內海를 헤매고 있다는 전설만이 남아있다.

이곳 사람들은 이 게를 「平家게」라 부르고 있다.

가장 깊은 곳이 341m이며 평균 100m안팎의 瀬戶內海는 그 옛날의 파란을 잊은듯 잔잔하기만 하다.

日本の 歷史에서 이 海道가 차지해온 몫은 매우 컸다.

가장 오래된 古典인 日本書記나 古事記에서도 그것은 증명되고 있다.

國家와 皇室의 創生도 이 海道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日本文化의 起源과 發展에 있어서 瀬戶內海는 결정적 疇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밀접한 것이었다.

日本の 옛 歷史에는「渡來人」이 수없이 등장한다.

渡來人 — 그는 바로 日本으로 건너간 우리 조상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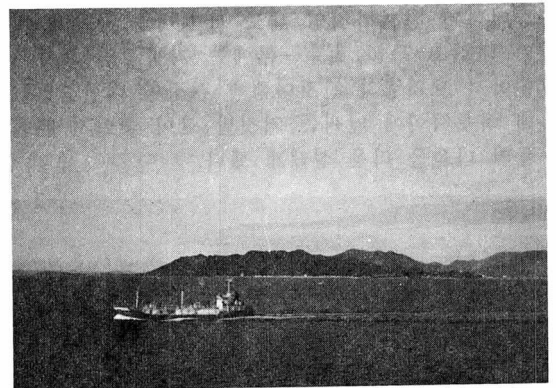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朝鮮通信使」를 빼놓을 수 없다.

17세기 초부터 日本을 왕래하게 된 朝鮮通信使는 德川幕府 260년동안 모두 12차례에 이르렀다.

그때만 하더라도 朝鮮朝는 日本이 國交關係를 맺고 있던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에 朝鮮通信使는 日本에게 있어서 國際정보와 선진적 學術문화 흡수의 파이프라인이라 할수 있었다.

최고 5백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 이었던 朝鮮通信使는 釜山港을 떠나 對馬島를 거쳐 瀬戶內海에 들어 왔는데 이 海道를 지나는 동안 牛窓·室津·兵庫등 일곱항구에 기착했었다.

기착지에 모여든 日本인사들은 이 호기를 놓칠세라 밤잠을 설치고 끼니를 거를 만큼 가는 시간을 안타까와 하며 우리 인사들과 얘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朝鮮通信使가 지난 海路〉

서울에서 江戶까지 왕복 6개월이나 걸린 朝鮮通信使의 행차는 쌀10만석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는데 日本으로서는 10년내지 30년만에 한차례씩 치르는 一世一代의 國家大事로서 그 성의와 정열을 다했다는 것이 歷史의 기록이다.

어쨌든 朝鮮通信使의 왕래로 상징된 두나라의 친선관계는 明治政府의 成立 때까지 유지되었다.

끊임없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항구를 바라보며 나는 朝鮮通信使의 노고와 함께 日本에 심은 우리 文化의 자취를 생각해 보았다.

「올림피아88」은 鷲羽山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여기가 瀨戶大橋가 놓여지고 있는 곳이다.

本州의 鷲羽山과 四國의 坂出市를 잇는 이 다리는 87년에 완성될 예정인데 이 일대에는 大小 50개의 섬이 있는 곳이라 섬과 섬을 잇고 잇는 全長 12km의 大橋이다.

그럭저럭 배는 廣島 앞바다를 지나고 있었다.

船上의 손님들은 老少를 막론하고 모두들 망원경 앞에 매달려 있었다.

이 일대는 日本 水軍의 근거지로 세계적 軍港인 구레(吳), 海軍兵學校가 있었던 江田島등이 있었다.

그리고 廣島는 41년전 8월6일 美軍의 原子爆彈이 투하된 곳이다.

그로 인해 太平洋戰爭은 순식간에 종식됐지만 人命피해는 엄청났었다.

그 사흘뒤인 8월9일 나가사끼(長崎)에도 原子爆彈이 투하되어 이 두 도시에서 40여만명이 폐죽음을 당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 교포 2만명이 포함되어 있다.

목숨은 건졌으나 그뒤 原子病에 시달린 교포

도 3만명에 이르렀으며 그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지금도 1만여명이 신음하고 있다는 얘기가이다.

廣島는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서 지금은 人口 1백만의 아담한 도시로 회생했으나 그 날을 잊지 못해 해마다 8월6일이면 대대적 反核 행사를 갖는다.

바로 그날 「올림피아88」은 그 앞바다를 지나게 된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5만여명의 平和애호인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도했다.

喜悲의 海道에 서서히 어둠은 닥아왔다.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불빛, 그리고 밤은 깊어만 갔다.

이번에 안 것인데 明治天皇의 瀨戶內海에 대한 관심도 대단했던 모양이었다. 집권초기의 14년동안 北海道에서 九州까지 여섯차례 國土순시를 했는데 瀨戶內海를 지나간 것이 세차례에 이른다.

東西 440km — 瀨戶內海의 횡단은 船客들의 꿈속에서 마무리지어 진다.

10시간 이상의 海道浪漫에 들뜬 머리를 달래며 나는 혼자 속삭였다.

『바다는 언제 잠드는가』고

〈筆者：前 韓國新聞協會會長〉

## 500字 知識

### U·N·E·P (유엔 環境計劃)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環境計劃은 유엔人間環境會議의 勸告로 1972年 第27次 UN總會決議(第2997號)에 의거 設立되었다.

世界 모든 國家를 會員國으로 하며 UN機構內的 環境關聯事項과 國際的인 問題에 對한 調整과 觸媒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本部：케니야의 나이로비

組織：管理理事會, 事務局, 環境基金, 調整을 爲한 行政委員會

◎管理理事會 (執行理事會)

U·N·E·P의 議事決定機構로 定期總會(每年

1回)에서 U·N·E·P의 事業活動, 豫算및 世界環境狀態 等 全般的인 事項을 檢討決議한다.

管理理事國은 UN總會에서 選出된다. 理事國은 58個國으로 構成되며 理事國의 任期는 3年이다.

理事國은 地域의 配分에 의해 每年 1/3씩 交替되며, 아시아 地域의 配當國數는 13個國이다.

우리나라는 1986年 12月 5日 비로서 管理理事國으로 被選되었다.